

지역 소식통

정읍시, 하절기 친환경

방역소독 집중실시

정읍시는 올해부터 방역소독 방식을 연마소독에서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전환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연마소독은 경유와 악제를 허석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주민건강 위험은 물론 환경오염 유발과 연기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살충제를 물에 희석한 뒤 미세한 입자 형태로 분사해 연기와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전환해 방역하고 있다.

또한, 해충 박멸을 위해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하수구, 공원 등 방역취약지를 중점 소독하는 한편 유충서식지 집중 방제를 병행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지향 시장경쟁력'

강화교육' 참가생 모집

정읍시가 정읍지향융복합사업단 '정읍지향 시장경쟁력 강화 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정읍지향 시장경쟁력 강화교육은 정읍지향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정읍지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공·위생·세무·회계 등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인화의 이해,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와 이해, 협업과 소비트랜드 등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읍지향 시장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8월 21일부터 9월 12일, 매주 월·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정읍시 청춘活力소에서 총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정읍지향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0여명이며,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 및 정읍지향융복합사업단(www.jeopjihw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 정읍 물빛 축제' 팽파르

12~15일 정읍천변 일원서 개최... EDM 공연·레이저쇼·곡선분수·LED 야간경관조명 베블쇼·레크레이션·간식 머거리 등 17개 부스·수제 맥주존·다양한 공연 등 준비

반짝이는 물빛의 향연, 여름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2023 정읍 물빛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정읍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7시, 조선팝 이회정 밴드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어 빛 불 퍼포먼스와 음악이 들썩이는 EDM Party로 이어진다.

정읍천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쇼와 곡선분수, LED 야간경관조명은 여름밤 물빛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예정이다.

무더운 여름을 무찌르는 물총싸움과 톡톡 터지는 비눗방울 베블쇼, 초산교 위에서 쏘는 물대포와 워터풀·워터슬라이드에서는 여름철 친환경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

또한,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패들보트 레이스·짐경



다리 건너기 등 재미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정읍시 공식 SNS 인증을 하면 사진을 찍어 출력해주는 물빛네컷이 준비되어 있어 2023 정읍 물빛축제에서의 즐거운 순간을 기록할 수 있고, 간식먹거리와 체험, 농특산품 흥보 등 17개 부스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수제맥주존이 운영된다.

여름 감성에 젖게 하는 블루스와 신나는 EDM 공연, 지역예술공연, 정읍 시립 국악단·농악단의 기획공연은 2023 정읍 물빛축제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하수 정읍시장은 "처음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2023 정읍 물빛축제에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7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국순당고창명주(대표 김영동)가 미국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창 복분자주, 미국 시장 수출 '박차'

국순당고창명주 '명작 복분자' ... 미국 현지 마트 등에 8만불 수출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김영동 대표는 "복분자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고창 복분자주의 미국 수출이 이루어져 자부심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창 복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 복분자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순당고창명주의 '명작 복분자(375ml)'다. 급속냉동으로 신선도를 유지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를 사용해 신선하고 깊은 복분자 맛을 느끼고 해주고 인공 색소 보존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지닌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물량은 8만달러(1억300만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미국 현지 마트,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숙박·체험비 최대 4만원 지원한다

고창 방문의 해 맞아 '숙박·체험 할인 이벤트' 진행...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전북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 방문의 해 숙박·체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까지 지역내 지정 숙박·체험 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머물며 즐기는 고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고창군 외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이벤트 참여 업소 중 1개소를 우선으로 예약한 후 입실 시 숙박 업소에서 신분증 주소 확인과 신청서

류를 작성하면 된다.

할인금액은 10만원 이상 4만원, 8만원 이상 3만원, 5만원 이상 2만원, 5만원 미만 40% 할인 등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할인 혜택은 1인당 1회(월 5회) 까지 가능하다. 추가인원요금, 부대시설 이용, 관광목적이 아닌 정치·종교 대규모행사, 여행사 인솔 단체관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실 이용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정 숙박·체험 업소 목록, 참여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과 고창 방문의 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방문의 해와 연계한 이번 숙박·체험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창에 오래 머물면서 자연 일상을 쉬고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유산들을 즐기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영외활동과정 활동장 '큰 인기'

영상테마파크·직소천·고사포 해수욕장 등 14곳 활동장 운영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잼버리 대원들에게 '높은 만족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일 시작돼 반한정점을 돋아 가는데 부안군 영외과정활동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사상 초유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시원한 호수와 요트·카누·카약 체험, 숲속 그늘 해먹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김치담그기와 씨름 등 전통적인 한국의 맛과 멋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거 마련돼 스카우트 대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세계잼버리를 위해 부안영상테마파크와 직소천, 고사포·변산해수욕장, 변산미실길, 내소사, 청자박물관 등 14개소의 영외과정활동장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영외과정활동장에서는 패들보드와 부유식 수영장, 숲 빗줄놀이 및 해양 활동, 씨름·국궁·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세계환경프로그램, 트레킹, 텁풀 스테이, 1박 2일 캠핑 이영활동, 닉나루 /부안=김석진 기자

한지체험, 부안고려청자 타일만들기, 김치담그기 및 김치전·식혜 체험, 여객선 탑승 및 섬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1일부터 잼버리 아영지로 임영을 시작했으며 2일부터 다양한 과정활동에 참여했다.

부안군 영외과정활동장에는 지난 2일 3320명의 스카우트 대원이 찾았으며 3일 5300명, 4일 5877명, 5일 8863명 등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6일은 문화교류의 날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과정활동을 쉬고 잼버리 아영지 내 각국 캠프를 자유롭게 풀어나며 해외 친구들과 우의를 다지는 날이었지만, 지도자 등 2000여 명이 변산해수욕장에서 열린 2023 변산비치파티에 참여하는 등 부안군 영외과정활동장에 대한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줬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서림공원 편백숲에서 피톤치드로 힐링하세요"

약 1㏊ 치유서비스 공간 마련

부안군은 7일 서림공원 남서쪽에 있는 약 1㏊의 편백숲을 피톤치드 치유 존으로 정비하여 편백숲 치유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림공원 편백숲은 인근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피톤치드로 자연의 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나, 서림공원 끝자락에 위치해 주민들의 발길이 적은 곳이다.

이에 부안군은 편백나무 아래에서 더운 여름철 견강을 지킬 수 있게끔 주변 잡관목을 제거하고, 기존에 설치

된 평상 3개와 더불어 썬베드 8개, 해먹 5개를 새로 설치하여 편백 치유존에서 편안하게 누워 햇볕을 마시며 힐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음악방송설비를 설치하여 매일 오전 5시~11시, 오후 12시30분~7시 음악이 흐르는 편백숲을 조성하여 더욱 풍성한 숲 치유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보다 주민들이 편백숲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부안군 도시공원과장은 "서림공원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폭 열대피소로 지정된 만큼 스카우트대원들이 편백 치유존에서 무더위를 식

히고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편백숲과 서림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